

한해 마무리는 신명나는 국악으로

빛고을국악전수관 16일·23일
풍류회울선방·고현미 초청 무대
광주국악상설공연 20일
얼쑤·김광복·김산옥 등 공연



광주국악상설공연 송년공연 '한마당 잔치'는 20일 오후 7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벌써 12월이다. 신명나는 국악 공연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마무리 해보는 것은 어떨까. 먼저 매주 목요일마다 상설공연을 선보여온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올해 두 번의 목요일상설공연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16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공연에는 풍류회 울선방(대표 최성락)을 초청해 무대를 꾸민다. 공연 제목은 풍류의 밤 '소릿결 향연'.

풍류회 울선방은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평소 전통음악에 관심있는 이들로 꾸려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곡을 기악곡 화해 들려주는 사관풍류 '경풍년(慶豐年)'을 시작으로 발라드풍의 창작곡 및 대중가요, 대금정악과 산조합주 그리고 살풀이춤을 결집한 춤산조 등을 피리, 해금, 가야금, 아쟁 등으로 연주해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23일 오후 4시에 열리는 목요일상설공연 올해 마지막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고현미 명창의 '수궁가' 완창 무대로 꾸며진다.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그는 MBC 얼씨구 학당과 KBS 국악 한마당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남원시립국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도 볼 수 있다. 무료관람.

명인·명창·명무가 함께하는 광주국악상설공연 송년공연 '한마당 잔치'는 20일 오후 7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고현미

김산옥

이번 공연은 한 해 동안 국악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국악인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특별 초청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무대는 풍물세상 굿패마루와 타악그룹 얼쑤팀이 사물놀이 '운우풍뢰(雲雨風雷)'로 문을 연다. 땅의 소리인 북과 장구, 하늘의 소리인 징과

꽝과리가 음양을 표현한 곡으로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시키고 풍요로움을 담은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단막극 '황후심정'가 펼쳐진다. 피리명인 김광복은 피리와 재즈의 만남 '오!대니보이', '썸머타임' 등을 선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피리명인의 즉흥연주와 재즈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 어울려진 명품곡의 공연을 만나 볼 수 있다.

또 명창 전인삼은 박봉술제 '춘향가' 중 '동헌경사 대목'을, 명무 한명선은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진도복춤'을 선보인다.

국악경연프로그램 '조선판스타' 제1대 우승자인 김산옥도 무대에 오른다. 김 씨는 국악가요 '인연', '땀다 보아라'를 들려준다.

이 밖에도 모듬북의 향연 'TA(타)' 공연, 남도민요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등도 만날 수 있다. 공연은 광주MBC를 통해 방영된다. 무료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화순 청소년들 "우리들 꿈 영화에 담았어요"

전남기술과학고·화순고 학생들이
'꿈꾸는 별들' 제작 18일 시사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담은 영화를 제작, 시사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화순 전남기술과학고와 화순고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 '꿈꾸는 별들'이 오는 18일 오후 2시 화순농협(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74)에서 시사회를 열고 관객과의 대화(GV) 시간을 갖는다.

영화는 전남대 인문학센터와 화순 비영리 민간단체 '문화공간 나무와숲(김지유 대표)'이 주관·주최한 청소년 영화제작소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김예은(화순고 1년)양이 감독으로, 김지아(화순고 1년)·강윤주(화순고 1년)·김현중(전남기술

과학고 2년) 학생이 주연배우로 출연했다. 김태현(전남기술과학고 2년) 군의 시나리오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촬영에서 편집까지 학생들의 손이 안간 곳이 없다. 이들의 열정에 지역 영화인과 연극단체도 힘을 실었다. 화순 출신 박기복 감독은 '시나리오 작업에서 촬영까지 원스톱' 강좌를 통해 영화제작에 참여했고 극단 '레인보우' 박영배 단장과 김자영 배우, 전남기술과학고 지도교사 윤학근 교사가 특별출연으로 함께했다.

작품은 랩 작곡가가 되고싶은 주인공 지아(김지아)와 의대 진학만을 고집하는 엄마(김자영)의 갈등을 다룬다. 한편 '꿈꾸는 별들'은 이번 시사회를 거쳐 청소년영화제 및 국내외 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기술과학고와 화순고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꿈꾸는 별들'

먹의 향취에 빠지다

금봉미술관 26일까지
'筆墨 벗하다' 전

'먹의 향취에 빠져들다.'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은 문인화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해왔다. 참가자들은 해마다 전시회를 열고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전시회를 열지 못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필묵(筆墨) 벗하다'전이 오는 26일까지 금봉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수강생들은 조창현(문인화), 광영주(서예), 박문수(산수화), 김재민(민화) 작가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만의 공부를 이어왔다. 강의가 개설된 후 수년 동안 꾸준히 수업을 받은 이들과 이제 막 문인화에 입문한 이들이 모두 참여한 전시에서는 문인화 강좌를 수강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는 김갑진·김경화·모일성·문식·문몽룡·박경숙·박래서 씨 등 43명이 참여한 작품을 선보이며 박문수 작가 등 강사들도 찬조출품했다.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진진원 작 '희망폭포'

소설가 선정 올해의 소설 '날마다 만우절' '눈으로 만든 사람'

작가 50명 추천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로 윤성희의 '날마다 만우절', 최은미의 '눈으로 만든 사람'이 공동 선정됐다.

교보문고는 10일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리스트를 발표했다. 소설가 50명에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출간된 소설 중 작품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소설 한 권에서 다섯 권까지 추천받은 결과다.

공동 수상한 윤성희와 최은미는 각각 11명에게 추천을 받아 올해의 소설 1위에 올랐다. 윤 작가는 '날마다 만우절'로 제52회 동인문학상을, 최은미는 '눈으로 만든 사람'으로 한국일보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8표를 받아 2위를,



최은영의 '밝은 밤'은 7표를 받아 그 뒤를 이었다. 김초엽은 '지구 끝의 온실'로 5표를 받아 4위를 차지했으며 '술과 바닐라'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신작 '클라리와 태양'이 각각 4표를 받아 공동 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제1회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빛고을에서 더불어, 예술로 내일'이 오는 15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진행된다. 포럼 발제는 ▲차희정(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출강 강사) '장애인 예술현황과 발전방안' ▲차진환(이음밴드 활동 예술인) '3박자 장애예술: 공·공·공-공연, 공간, 공유'에 대해 얘기하고, 토론자는 김영순(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 이진행(광주장애인미술협회장), 양동준(허니펀치 대표) 씨가 나선다. 좌장·토론 진행은 이승권(조선대학교 프랑수아어학과 교수) 씨가 맡았다.

현장 참여 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하며, '광주문화재단 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